

## 금융위원장 모두 말씀

### -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

2018. 3. 19.

## 금 용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초연결되고, 초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이미 전세계는 '데이터 주도 경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EU, 중국 등 거대 경제권역에서는

빅데이터 혁명에 대응하여

앞다투어 혁신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세계 흐름 속에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혁신성장'과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관련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 II.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

###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가 갖는 의미

흔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原油)’에 비유되곤 합니다.

원유는 서기 347년 중국에서 이미 쓰였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소금을 생산하기 위해  
소금물을 끓이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시 중국인들은

원유가 오늘날 이렇게 전 산업분야에 걸친 생산성의 혁명을  
이루어 낼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데이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데이터가 가져올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은  
우리가 모두 파악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특히, 과거의 흔적으로 흘러보냈던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새로운 가치와 혁신을 창출하는 빅데이터는,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갖는 선입견과는 달리

데이터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인쇄술의 발달로

성경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기 시작하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신규자원인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다양한 활용이 보장된다면,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경쟁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창업기업이  
전통적인 비즈니스 영역을 해체하고  
산업의 지형을 새롭게 재편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2) 왜 금융분야 데이터인가?

이처럼 전 산업분야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특히, 금융분야는

데이터의 활용을 핵심으로 하는 산업입니다.

앞서 데이터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에 비유했지만,

저는 금융분야에서의 데이터는  
오히려 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물이 생명체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모든 자금흐름의 이면에는  
데이터가 흐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금융산업의 발전은  
데이터의 공유·활용을 통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정보에 기초하여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쌓이는 정보는 개인의 신용이 되어  
개인을 신용사회로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또, 금융회사는 이를 분석하여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게 됩니다.

둘째, 물이 구석구석 막힘없이 흘러야만  
생명수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도 원활하게 유통되어 적재적소에 활용되어야  
금융의 포용성이 넓어집니다.

금융의 역사는  
개인과 기업의 신용정보를 매개로  
소수 계층에게만 배타적으로 제공되던 금융서비스를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그 외연을 확대해 오는 과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때로는 다이아몬드를 절단할 수도 있을 만큼 강력하듯이,  
데이터는 금융시장의 질서와 규율을 확립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 활용될 때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됩니다.

대형 금융회사에만 집중되어 있는 고객정보가 공유된다면,  
금융산업의 독과점적 구조가 혁파되고,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금융분야가 가장 먼저 혁신을 이루어 내는 이유입니다.

### (3)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우리금융의 사례

우리 금융시장의 성장과정을 돌이켜 볼 때에도,  
데이터의 공유와 활용은  
우리 금융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 개발연대 시절에는  
체계적인 신용정보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자금배분이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대기업대출 중심,  
보증·담보 위주의 여신 관행이  
지속됐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금융시스템은  
'97년 외환위기를 맞아 한계에 이르렀고,

금융회사들은  
구조조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압력에 직면하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자산확대 경쟁은  
신용카드,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쏟림과 위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03년에는 카드대란과 신용불량자 급증이라는  
뼈아픈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기에 대응하여  
우리는 신용정보 인프라를 확충하고 CB사를 도입하는 등  
체계적인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체계는 이후 십수년간  
건실하게 성장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가 고도화되었으며,  
책임여신의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안전장치를 기반으로 이제 우리 금융은  
무형의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신용·기술금융까지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담보나 보증이 없는 개인·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평판과 가능성에 기초한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Ⅲ. 우리의 현주소

---

이렇듯 우리나라 금융산업과 데이터산업은 짧은 기간 압축적인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에 안주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먼저, 미국·중국·EU 등 거대 경제 권역은 한마디로 데이터 전쟁 중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활용에 우호적인 문화·제도적 배경 하에 데이터 거래와 빅데이터 분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정부 주도로 방대하게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산업에서 미국을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보보호를 중요시해왔던 EU의 경우에도, 미국·중국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금융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은 거대 경제권역보다 한발 늦은 상황입니다.

그간 공공부문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노력이 어느정도 있었으나, 민간부문의 발전은 지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개인정보보호 규제는 지난 2013년, 이미 외신 등으로부터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14년 신용카드사 정보유출 이후 규제가 더욱 강화되어 민간부문 빅데이터 활용을 상당부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의 전 단계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사실상 의미있는 빅데이터 분석은 어렵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이터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는 전세계적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보호와 데이터활용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정책방향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 IV. 향후 정책방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정책을 마련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해왔던 몇가지 점에 대해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 (1) 첫 번째 약속입니다.

금융분야가 데이터 기반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금융분야는  
활용도가 높은 정보가 빠르게 축적되고,  
상시적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산업보다 데이터 주도 혁신이  
용이한 산업분야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규제위주의 접근과 금융회사의 보신적인 관행으로  
금융혁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에 삶에 체감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혁신이  
금융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금융분야를 빅데이터 테스트베드로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 (2) 두 번째 약속입니다.

금융분야 데이터는 사람을 향해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의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듯이,  
금융이 보다 많은 개인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이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혜택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이루어내고자 합니다.

데이터 활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금융회사의 편익에 따른 천편일률적인 금융상품이 아닌,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정형, 비금융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신용위험 평가를 정교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간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하며,

금융이용 경험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던  
청년층, 주부, 고령자 등도  
제도권 금융이 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3) 세 번째 약속입니다.

데이터의 활용으로 금융시스템은 더욱 공정해질 것입니다.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대형사의 정보독점이 심화되고,  
대형사와 중소형사, 핀테크업체간의 정보격차는  
더욱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큼니다.

정부는  
핵심자원인 데이터의 공정한 접근과 활용을 보장하여  
금융시스템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오랜 업력과 높은 진입규제 등으로  
많은 고객 데이터를 축적해왔으며,

이는 또다시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대형사 등에 고여있는 데이터를  
필요한 곳으로 흐르게 하여,

핀테크업체, 창업자, 소상공인 등도  
정보의 부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4) 마지막으로,

금융부문 데이터로 정보주체를 소외시키지 않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나의 정보가 나도 모르게 함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 신용사회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을 금융시장에 이어주는 매개가 됩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 그 자체라기보다는

나의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게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일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형식적인 정보활용 동의제도를 내실화하고,  
빅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한  
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등  
적극적인 대응권을 충분히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인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 V. 마무리 말씀

---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데이터 활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당면한 급박한 현실을 외면했던 것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금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까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입법과정 등 후속조치까지 잘 추진되어  
소비자의 삶에 체감되는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